

DUCK's NEWS

무단횡단 없이 건널목 건너는 오리 가족

흰뺨검둥오리, 도심에서 번식...자연의 품으로



경남 창원시 도심에서 번식에 성공한 흰뺨검둥오리 가족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생태 사진작가인 최종수 경남도청 주무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둥지를 튼 흰뺨검둥오리 부부가 낳은 13개의 알이 부화해 10마리의 새끼가 탄생했다고 알렸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작은 연못에서 수영을 배우고 먹이 사냥을 하며 에너지를 보충했다.

그러나 오리 가족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떠나 창원 도심 하천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새끼들은 엄마의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동

했다. 도로에 도착한 오리가족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건널목으로 건넜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놀랍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끼 10마리를 이주시킨 오리 엄마는 남은 알이 혹시나 부화했는지 둥지를 다시 찾았다.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모성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일하는 관계자는 “흰뺨검둥오리 부부가 5년째 이곳에서 번식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지켜보면서 모성애에 대한 위대함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2020. 5. 8]

June 2020

오리협회·오리자조금, TV로 오리고기 우수성 홍보

KBS 1TV '6시 내고향 상생장터'에 소개



KBS 1TV '6시 내고향 상생장터'에 전라남도 고흥의 '오리고기'가 소개됐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지난 4월 28일 KBS1 TV에서 방영된 '6시 내고향 상생장터'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가를 방문, 시청자들에게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해 방송 이후 오리고기에 대한 구매문의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상생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른 육류보다 고소한 맛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단백질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섭취해주면 영양보충으로 효과적이다. 육류의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해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

으며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 혈관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오리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A, 비타민 B, 레시틴 등의 다양한 영양소는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레시틴 성분은 중금속 배출을 도와 환절기 미세먼지에 노출된 폐를 보호해 준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 오리고기"라며 "오리고기로 건강도 챙기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농가들도 돕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오리고기의 구입 방법은 KBS 1TV '6시 내고향'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축산신문 [2020. 5. 7]

DUCK'S NEWS

제주 서귀포시, 가금농가 방역실태 점검

제주도 서귀포시는 A(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중앙점검반(농식품부)과 지자체 간 축종별 점검 대상을 구분해 중앙점검반은 종오리·오리농장·산란계농장을, 지자체는 육계·종계·토종닭·특수가금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2차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1차는 오는 7월 31일까지, 2차는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점검반은 전실·울타리·그물망·CCTV 등 방역 및 소독시설 적정 설치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 기간

과 희석 비율,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 산란율 기록·보고 등 방역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 현지도 및 확인서를 징구하고 2차 점검기간 중 매월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미 이행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시의 국내 발생이 없지만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제라도 유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출입 차단과 내·외부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일보 [2020. 5. 12]

편의점 간편식도 보양식 오리고기로

이마트24, 매콤오리 정찬·삼각김밥 출시



이마트24는 이른 여름을 맞아 보양식인 오리고기를 넣은 정찬과 삼각김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24는 이달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보양식을 찾는 고객 수요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보양식 상품을 선보이게 됐

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매콤오리 불고기정찬·삼각김밥 등 총 2종이다. 이들 제품은 국내산 1등급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오리고기를 매콤하게 볶아 냈다.

정찬은 흑미밥과 오리불고기 볶음, 계란말이, 어묵 볶음으로 구성됐다.

매콤오리 삼각김밥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보양식을 즐기려는 고객을 위해 기획됐다.

▶연합뉴스 [2020. 5. 19]

June 2020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오리업계 ‘휘청’

사육제한 대비 물량 비축...외식수요 위축까지

오리업계가 코로나19로 휘청이고 있다.

3년째 시행중인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 수요가 위축되면서 오리고기 소비도 쪼그라든 탓이다.

특히 오리고기는 대부분 외식이나 대형마트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에 당장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오리업계 관계자는 “오리고기는 타 육류와 달리 외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오리고기 소비가 구이용과 훈제오리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오리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오리 산지가격은 kg당 1,319원으로 전년 2,575원 대비 무려 49%나 하락했다. 또한 지난 3월 훈제오리 온라인 판매가격도 100g당 990원으로 전년 1,700원보다 43%나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까닭에 오리고기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인 kg당 1,890원에도 못 미치는 등 농가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영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오리고기 냉동재고량이다. 지난해 12월 490만 마리였던 오리고기 냉동재고는 지난 1월 530만 마리, 2월 560만 마리에 이어 3월에는 630만 마리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지난 4월 산란종오리 자율감축 사업을 시행해 10개 농가, 총 5만 마리의 도

태를 완료했다. 또한 오리업계 역시 산란중인 종오리 조기도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중 종오리 입식마릿수 역시 대폭 줄어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리업계의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실정이다.

7개 계열업체의 오리 냉동재고량이 5월 현재 약 540만 마리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인데다, 복 시즌을 겨냥해 오리병아리 입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오리업계 관계자도 이에 동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 향후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오리가격도 복 시즌에만 반짝 상승했다 다시 하락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오리고기 급식 및 이용을 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면서 “오리병아리 입식을 자제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2020. 5. 22]

DUCK'S NEWS

농식품부, AI 방역대책 선제적 추진

국내 AI 유입 가능성 커…농가 방역수칙 준수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급증으로 올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대비 AI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해외 AI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동계대비 유럽 내 발생이 23배,

중국·대만 등 주변국 발생이 3배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AI 발생이 지난 동절기 이후 현재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3월 17일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나, 해외 발생 급증 상황과 매년 겨울철 해외에서 도래하는 철새 등을 감안할 때, 올겨울 국내 AI 유입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위험시기인 올겨울을 대비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위험요인 관리체계를 사전에 촘촘히 구축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AI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동절기 전에 취약요소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미흡농가의 경우 집중 관리를 통해 시



설을 조기 보완하는 한편, 농가 점검 결과를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 반영해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함께 강화한다.

AI 전파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축

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시행도 앞당기며 농가 유입 최소화를 위한 농가 출입통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대외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의 방역 의식과 역량을 높인다.

지자체, 민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권역·그룹별 협의회(영상회의 등)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현장 중심의 방역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AI 발생이 급증한 만큼 올겨울 AI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방역시설의 사전 보완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2020. 5. 22]

June 2020

정읍시, 가금농가 219곳 시 집중 방역·소독



전북 정읍시가 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 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일찌감치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발병 예방에 나섰다.

정읍시는 올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겨울철 대비 선제적 방역 대책과 방역수칙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식품부(검역본부)와 9월까지 지역 219호의 가금 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시설과 소독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출입 인원·차량 통제 등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닭 3,000수 이상, 오리 2,000수 이상, 기타 가금 2,000수 이상의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다.

점검반은 가금 농가 출입 시 방역복 착용을 위한 전실 설치·관리 여부와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 시설 이상 유무, CCTV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점검(5~7월)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로부터 확인서 및 정비·보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1차 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농가는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개선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방역·소독시설 미흡 농가에 대한 시정(정비·보수)명령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 결과와 내용은 모두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필히 입력 전산 등을 통해 사후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내 가금 농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방역 소홀이 우려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점검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2020. 5. 25]